

학습·생활방식 수능 시간대에 맞춰라

수능 한달 앞으로... 학습전략은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학습방법만 아니라 생활습관도 수능일에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바뀌어야 한다. 두뇌가 잠에서 깨어나 활발히 움직이는 데는 2시간 가량 걸린다.

수능 첫 시험인 국어영역이 오전 8시40분에 시작하는 만큼 맑은 정신으로 시험에 임하려면 오전 6시30분께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또 수능은 오후 5시까지 시험을 치러야

8시40분 첫 시험... 2시간 전 기상습관 길러야

국·수·영·탐구역 순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오답노트·기출문제 풀이 반복... 수능 유형 숙지

하는 탓에 자칫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평소에도 최대한 수능과 비슷한 환경에서 학습하는 게 좋다. 과목도 수능에 맞춰 국어·수학·영어·탐구역 순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학습전략은 새로운 문제풀이보다 그동안 정리해둔 오답노트와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하면서 수능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모의평가에서 쉬웠던 국어와 영어 영역은 이번 수능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항출제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실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BS 연계교재의 지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수학은 지난 모의평가에 출제된 신유형 문제에 대한 분석과 고난도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부족한 부분은 오답노

트를 활용해 정리하면서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탐구역역(사회·과학)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중심으로 오답노트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하고, EBS 연계교재의 자료·도표·그림을 변형해 출제되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장광재 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승덕고 진로진학부장)는 “수능 전략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과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라며 “토·일요일을 이용해 과목을 정한 뒤 통으로 문제풀이를 해볼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통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맥락을 잡고, 틀린 부분은 확실히 깨칠 수 있으며, 시간 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빛고을 나눔장터’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시민광장에서 열린 ‘2014 빛고을 나눔장터’를 찾는 시민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품수수·성적조작 교사, 교감 못한다

교육부, 교원연수 규칙 개정안

앞으로 금품·향음 수수, 성폭행, 성적 조작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또 교감이 되려면 3급 이상의 한국사 능력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음 수수, 공금 횡령,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일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평정 점수에 따라 ‘교감과 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가 작성되고 선 순위자가 면접을 거쳐 연수대상자로 지정

된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재량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수 대상자에서 뺄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일정 정도의 한국사 능력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교감자격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았거나 한국사 관련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군법원, 부하 직원 성추행 사단장 구속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육군은 최근 “지난 10일 밤 9시25분께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사단사령부에 근무 중인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5회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날 오후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했고, 중앙수사단은 이날 육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부터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꺼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6 해질 21:47
해짐 18:01 맑음 11:13

단풍잎 적시는 가을비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비가 오다가 낮부터 그치겠다.
예상 강우량 1~4mm

지역별 날씨 (℃)

광주	17/23	보성	비온뒤	16/23	
목포	비온뒤	18/22	순천	비온뒤	16/24
여수	비온뒤	18/21	영광	비온뒤	16/22
나주	비온뒤	16/23	진도	비온뒤	18/23
완도	비온뒤	18/23	전주	비온뒤	17/24
구례	비온뒤	15/24	군산	비온뒤	15/23
강진	비온뒤	17/24	남원	비온뒤	16/22
해남	비온뒤	17/24	속산도	비온뒤	18/20
장성	비온뒤	16/23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북동	2.0~3.0	북~북동	2.0~3.0
	남부	남~북동	2.0~4.0	북~북동	2.0~4.0
남해	서부	남~북동	2.0~4.0	북~북동	2.0~3.0
	서부	남~북동	4.0~6.0	북~북	3.0~5.0

생활지수

식중독	50
운동	20
빨래	20

주간 날씨

날짜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날씨	☀	☀	☁	☀	☀	☀	☁
날짜	11/21	9/22	11/22	10/22	9/23	9/24	11/23

광주·전남 비만 학생 더 많아졌다

작년 증가율 전년대비 각각 15.6%, 15.4% '전국 최고'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의 비만 학생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초·중·고 비만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비만학생 비율은 광주의 경우 15.6%, 전남 15.4%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15.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지역의 비만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11년 13%에서 2012년 12.6%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포인트 증가한 15.6%를 기록했다.

전남도 2011년 12.9%, 2012년 14.1%, 2013년 15.4%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 2011년 대비 증가율이 2.5%포인트에 달했다.

이같은 증가율(2011년 대비)은 경남(3.2%포인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는 남학생 비만율(16.7%)이 여학생 비만율(14.4%)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교생 비만율이 18.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4.6%, 초등학교 14.3%였다.

전남은 여학생 비만율(15.5%)이 남학생 비만율(15.3%)보다 다소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비만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15.9%, 고등학교 14.2%였다.

김희선 의원은 “비만율과 지역별, 성별의 격차 원인을 분석해 시·도 교육청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전용면적 57㎡ 228세대

전 세대 남향배치

- 입주 전 베이비아웃 실시
- 전세대 확장형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공방시스템 설치
- 건식 욕실,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1층 필로티 구조
- 전세대 LED조명 설치
- 애완견 등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인방 불박이장 설치
- 출·오토시스템
- 주출입구 차량통제 시스템

문의062 **264-7789**

10월17일 OPEN

김장훈 팬사인회